

주방생활용품 산업 진흥에 주력 소비자및회원사권익보호



김 준 일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회장

국내외 주방생활용품의 진흥과 소비자 권익보호 및 주방생활용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지난 달 11일 프라자 호텔에서 (주)락앤락, 동양케미컬(주), (주)라이프양행 등을 비롯한 52개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학계, 유관기관 등 국내 주방생활용품 진흥 관련 민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회원상호간의 기술정보 공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공동 마케팅, 주방생활용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표했다.

지난 달 월간포장계는 현 하나코비(주) 회장인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김준일 초대 회장을 만나 협회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처럼 주방생활용품 산업도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초대 회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에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며, 튼튼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주방생활용품 산업에 종사하면서 소비자, 기관, 단체, 업계간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방생활용품 산업은 안정성 확보와 신뢰 회복, 올바른 정보 전달 및 교육, 소비자를 고려한 정책(현실적인 안전관리포함), 정부·기업·소비자 단체의 공동 인식과 노력, 신중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제도적 장치,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추진력 있는 협회의 발족이 절실했다.

이로써 관련 업계 및 기관들은 주방생활용품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를 설립하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의 발족을 위해 2006년 10월 창립총회를 갖고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지난 4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김 회장은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주방생활용품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분명하면서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하고, 협회의 역량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세우며, 대내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강화하여 산업체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위한 일들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회는 공인시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폭 넓은 회원 유치와 협회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의 주방생활용품 산업의 진흥 발전을 모토로 △ 우수 기술, 제품에 대한 발굴 및 보급사업전개 △ 유해하고 불법적인 제품에 대한 감시 활동강화 △품질우수 제품에 대한 협회 공식 품질인증제도시행 △ 품질 표준 및 제품 안전 기준 마련 △ 기업 지원 방안 모색 △ 협회 매거진 발행(업계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방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교류를 위해 △ 주방생활용품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 주방생활용품에 대한 기준,

규격 조사 연구 △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주방생활용품산업에 대한 국내·외 교류 협력 △ 연구지원(산학협동) 및 연구보고집 발간 △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 제안, 주방생활용품산업 전문인력양성과 업계종사원교육, 새로운 주방생활용품의 개발 및 지원, 주방생활용품 산업의 홍보,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방생활용품 산업의 진흥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력할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일부 포화 상태에 있는 국내 주방생활용품 사업과 관련해 업계는 자발적인 혁신과 신사업에 대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의 노력만큼이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노력도 국내에 있어서는 중요한 승리 요소라는 것. 실제로 하나코비는 제품을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하고 10여년 만에 매출이 40배가 늘어나는 특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업계가 스스로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생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한국의 주방생활용품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협회의 취지를 아직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비회원들이 ‘월간 포장계’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방생활용품 산업 발전에 크게 앞장 설 (사)한국생활용품산업진흥협회. 많은 관심 속에 발족된 만큼 협회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 ☞

이한일 기자